

주요 노동동향

● 생산 및 물가 동향

◆ 2017년 6월 생산 전년동월대비 1.5% 증가(전월대비 0.1% 감소)

- 전산업 생산은 제조업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서비스업, 건설업의 증가 영향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1.5% 증가함(전월대비 건설업, 제조업 감소 영향으로 0.1% 감소).
- 제조업 생산은 기계장비(22.5%), 의료정밀광학(27.4%), 전자부품(5.6%) 등에서 증가했으나 반도체(-12.4%), 기타운송장비(-13.2%), 금속가공(-6.5%)에서 감소해 전년동월대비 0.4% 감소, 전월대비 0.3% 감소함.
-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음식점(-4.0%), 예술·스포츠·여가(-2.0%)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금융·보험(6.8%), 보건·사회복지(8.4%) 등이 늘어 2.0% 증가함(전월대비 0.5% 증가)

◆ 2017년 6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1.0% 증가, 설비투자는 전년동월대비 18.7% 증가

- 소매판매액지수는 의복 등 준내구재(-2.0%) 판매는 줄었으나 가전제품 등 내구재(1.4%), 화장품 등 비내구재(1.8%) 판매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1.0% 증가함(전월대비 1.1% 증가).
- 설비투자는 항공기 등 운송장비(-19.7%) 투자는 감소하였으나,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41.1%) 투자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18.7% 증가함(전월대비 5.3% 증가).
- 건설기성(불변)은 토목(-15.9%) 공사 실적이 줄었으나 건축(17.8%)은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6.5% 증가하였고, 건설수주(경상)는 도로·교량, 철도·궤도 등 토목(39.8%)에서 증가하였으

나, 학교·병원, 주택 등 건축(-9.6%)에서 줄어 전년동월대비 0.4% 감소함.

◆ 2017년 6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동일, 선행종합지수 전월대비 0.7% 상승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p 하락함.
-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3p 상승함.

◆ 2017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2.2% 상승(생활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3.1% 상승)

- 2017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2.86(2015년=100)로 나타나 전년동월대비 2.2% 상승함(전월대비 0.2% 상승).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안은 전월대비)

		연 간			분 기								월			
		2014	2015	2016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3/4	4/4	1/4	2/4	3/4	4/4	1/4	2/4p			6월	6월
생산	전산업	1.4	1.9	3.0	2.5	2.7	2.1	3.2	3.0	3.5	3.9	2.6	2.4	4.4	2.6(-0.2)	1.5(-0.1)
	광공업	0.2	-0.3	1.0	0.4	0.4	-0.3	0.7	0.5	2.8	3.7	0.6	2.0	0.9	0.2(0.2)	-0.3(-0.2)
	제조업	0.3	-0.3	1.0	0.2	0.6	-0.5	0.9	0.6	2.9	3.8	0.5	2.1	1.0	0.1(0.2)	-0.4(-0.3)
	내수출하	0.4	0.8	1.3	1.4	2.2	0.8	0.8	-0.4	4.1	3.1	0.8	2.3	0.9	0.8(0.2)	0.9(1.7)
	수출출하	-0.3	-0.5	-0.1	1.2	-1.1	-3.3	2.5	0.0	0.6	3.9	-1.9	1.1	3.4	-3.6(1.3)	-1.2(4.7)
	건설업	-0.7	5.0	15.4	8.7	10.7	13.2	15.8	14.5	17.7	17.9	12.9	3.9	17.0	15.1(-1.6)	6.5(-2.4)
	서비스업	2.3	2.9	3.0	2.9	3.3	2.8	3.5	3.6	2.1	2.6	2.3	1.8	4.9	2.3(-0.2)	2.0(0.5)
소비	소비재 판매	2.0	4.1	4.3	3.6	6.3	5.0	5.9	3.5	2.5	1.9	1.7	1.0	9.4	1.5(-1.1)	1.0(1.1)
투자	설비투자	5.2	6.9	-1.3	10.8	2.0	-7.6	0.6	-4.7	5.9	18.1	17.6	13.2	2.1	19.5(1.8)	18.7(5.3)
물가		1.3	0.7	1.0	0.6	0.9	0.9	0.8	0.7	1.5	2.1	1.9	0.7	0.4	1.9(-0.1)	2.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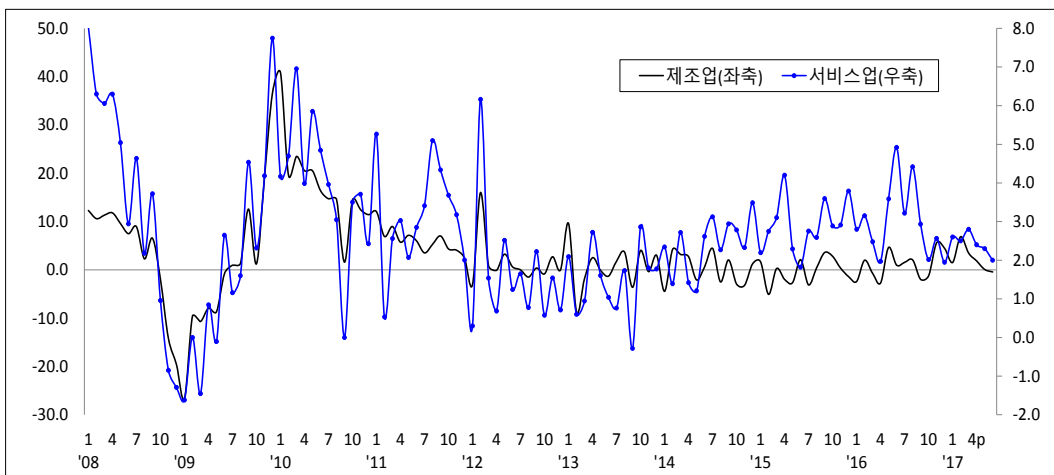
-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가스업(D)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 12. 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를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 3) 전산업의 2016년 및 분기지수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수치임.
- 4) 물가상승률은 2017년 7월 기준임.
- 5) p는 잠정치임.
- 6) () 안은 전월비 기준임.

자료 : 통계청 KOSIS,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식료품·비주류음료(5.6%), 주택·수도·전기·연료(3.9%), 음식·숙박(2.4%), 기타상품·서비스(2.7%), 교육(1.1%)에서 상승함.
- 2017년 7월 생활물가지수는 102.95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3.1% 상승함(전월대비 0.1% 상승).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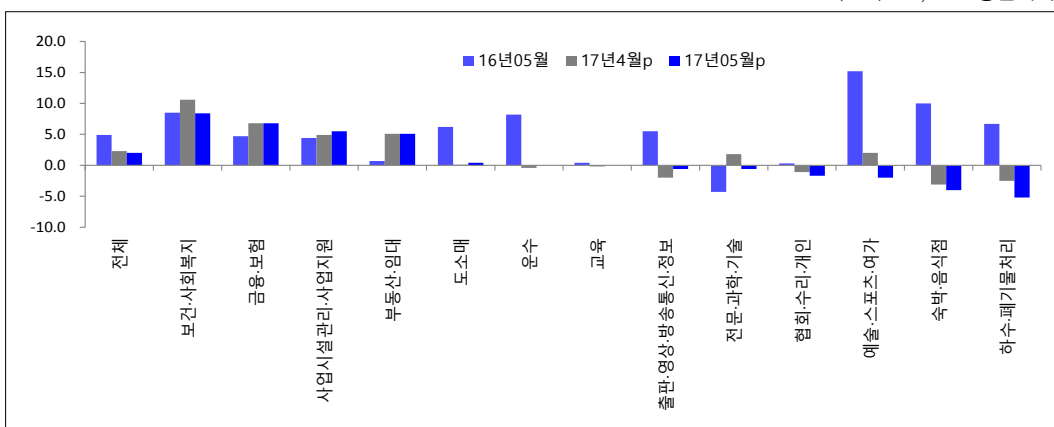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2017년 4월, 5월 수치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2017. 7), 『2017년 5월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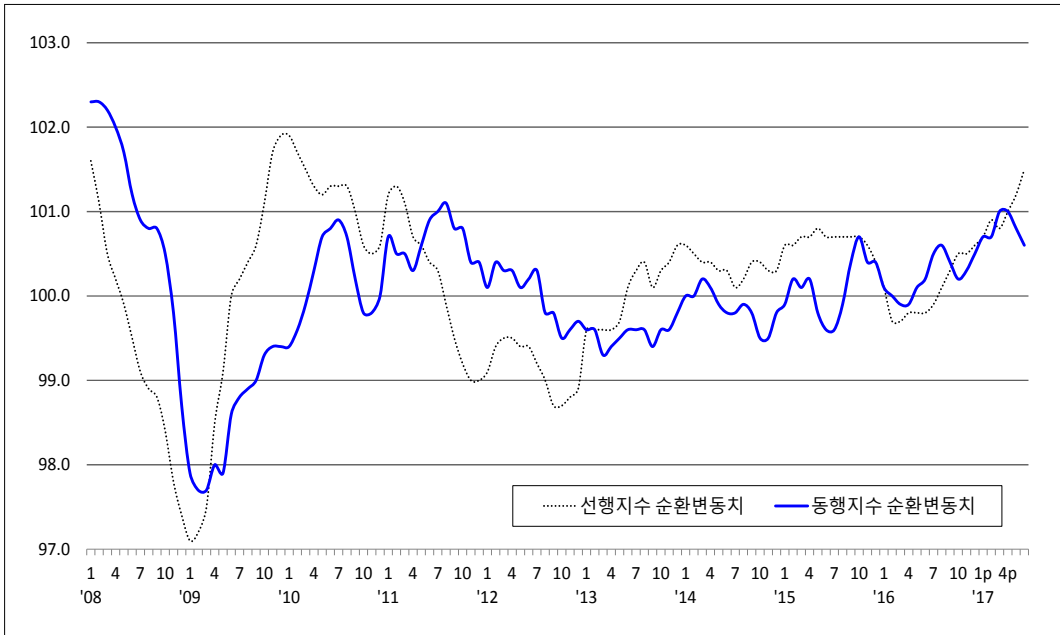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0=10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정성미,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고용 동향

◆ 경제활동인구를 상회하여 취업자 증가, 실업자는 감소

- 2017년 7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7,87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1천 명(1.1%) 증가함.
 - 취업자는 26,916천 명으로 경제활동인구 증가폭을 상회하여 313천 명 증가하였고, 성별로 보면 남성(131천 명)에 비해 여성(181천 명)의 증가폭이 더 큼.
 - 실업자는 11천 명 감소한 963천 명으로 실업률은 3.5%(전년동월대비 보합), 남성 실업자(576천 명)는 전년동월대비 24천 명 감소하여 실업률은 3.6%(0.2%p 감소)를 기록했으나 여성 실업자(387천 명)는 13천 명 증가하여 3.3%(0.1%p 증가)를 기록함.
- 2017년 7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3.7%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함.
 - 성별로 보면 남성(74.6%)은 0.1%p 감소하였고, 여성(53.2%)은 0.5%p 상승해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가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7월 중 고용률은 61.5%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함.
 - 여성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노동시장 참여를 보였는데 여성 고용률은 0.5%p 증가한 51.5%를 기록하였고, 남성 고용률은 0.1%p 증가한 71.9%를 기록함.
 - 15~64세 고용률은 0.5%p 상승한 67.2%를 기록하여 15세 이상 고용률에 비해 5.7%p 높게 나타남(그림 1 오른쪽 참조).
 - 15~64세 남성 고용률은 0.4%p 상승한 76.8%를 기록하였고, 여성은 0.6%p 상승한 57.4%를 기록함.
- 2017년 7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5,89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천 명(0.2%) 증가함.
 - 비경제활동 사유 중 ‘연로’는 10만 명 내외에서 증가가 지속중인 가운데 ‘취업준비’와 ‘쉬었음’이 2017년 5월부터 증가폭이 확대되어 2017년 7월 전년동월대비 각각 110천 명, 84천 명 증가한 것이 주요인임(그림 2 오른쪽).
 - 반면 ‘육아·가사’ 사유는 지난 5월부터 감소폭이 확대되어 7월 107천 명 감소하였고 지난 3월 이후 ‘재학·수강’은 15만 명 내외에서 감소가 지속중임.

〈표 1〉 주요 고용지표

(단위 :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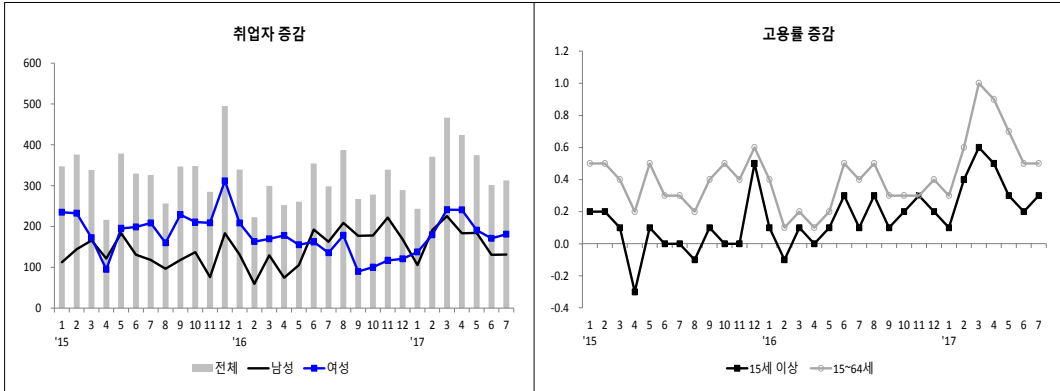
		2014	2015	2016	2015	2016	2017		
					7월	7월	5월	6월	7월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42,513	43,017	43,416	43,055	43,442	43,735	43,764	43,776
	(증가율)	(1.0)	(1.2)	(0.9)	(1.2)	(0.9)	(0.8)	(0.8)	(0.8)
	경제활동인구	26,536	26,913	27,247	27,303	27,578	27,828	27,929	27,879
	(증가율)	(2.6)	(1.4)	(1.2)	(1.5)	(1.0)	(1.4)	(1.3)	(1.1)
	취업자	25,599	25,936	26,235	26,305	26,603	26,824	26,860	26,916
	(증가율)	(2.1)	(1.3)	(1.2)	(1.3)	(1.1)	(1.4)	(1.1)	(1.2)
	증가수	533	337	299	326	298	375	301	313
	남성	(266)	(132)	(151)	(118)	(163)	(184)	(130)	(131)
	여성	(267)	(205)	(148)	(208)	(136)	(191)	(171)	(181)
	참가율	62.4	62.6	62.8	63.4	63.5	63.6	63.8	63.7
	남성	(74.0)	(73.8)	(73.9)	(74.7)	(74.7)	(74.5)	(74.6)	(74.6)
	여성	(51.3)	(51.8)	(52.1)	(52.6)	(52.7)	(53.1)	(53.4)	(53.2)
	고용률	60.2	60.3	60.4	61.1	61.2	61.3	61.4	61.5
	남성	(71.4)	(71.1)	(71.1)	(71.8)	(71.8)	(71.7)	(71.7)	(71.9)
여성	(49.5)	(49.9)	(50.2)	(50.8)	(51.0)	(51.3)	(51.5)	(51.5)	
실업자	937	976	1,012	998	975	1,003	1,069	963	
실업률	3.5	3.6	3.7	3.7	3.5	3.6	3.8	3.5	
남성	(3.6)	(3.7)	(3.8)	(3.8)	(3.8)	(3.7)	(4.0)	(3.6)	
여성	(3.5)	(3.6)	(3.6)	(3.5)	(3.2)	(3.4)	(3.7)	(3.3)	
비경제활동인구	15,977	16,105	16,169	15,751	15,864	15,907	15,834	15,897	
(증가율)	(-1.5)	(0.8)	(0.4)	(0.7)	(0.7)	(-0.2)	(-0.2)	(0.2)	
15~64세	참가율	67.8	68.3	68.7	68.9	69.2	69.6	69.8	69.7
	남성	(78.6)	(78.6)	(78.9)	(79.3)	(79.5)	(79.7)	(79.8)	(79.8)
	여성	(57.0)	(57.9)	(58.4)	(58.5)	(58.8)	(59.3)	(59.6)	(59.4)
	고용률	65.3	65.7	66.1	66.3	66.7	67.0	67.0	67.2
	남성	(75.7)	(75.7)	(75.8)	(76.2)	(76.4)	(76.7)	(76.6)	(76.8)
여성	(54.9)	(55.7)	(56.2)	(56.3)	(56.8)	(57.1)	(57.3)	(57.4)	

주 :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100,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100

자료 : 통계청(2017. 8), 『2017년 7월 고용동향』.

[그림 1] 성별 취업자 및 고용률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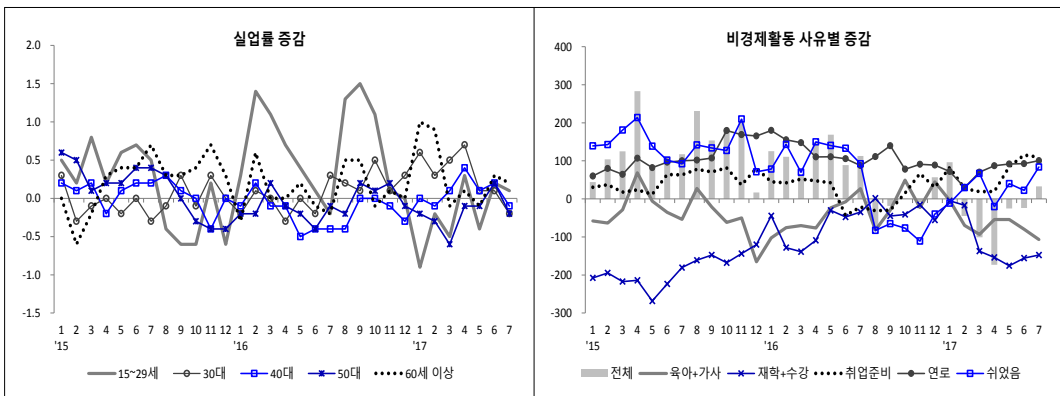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2] 실업률 및 비경제활동 사유별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주 : 비경제활동 사유 중 재학+수강은 정규교육기관 재학과 입시학원, 진학준비를 포함하고 취업준비는 취업준비와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통학(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을 포함함.

자료 : 통계청, KOSIS.

◆ 50대 이상 고령층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 지속

- 2017년 7월 중 연령별 취업자는 60세 이상(229천 명, 5.6%), 50~59세(145천 명, 2.4%), 30대(3천 명, 0.0%)에서 증가한 반면, 20대와 40대는 각각 18천 명(-0.5%), 48천 명(-0.7%) 감소함.
 - 2016년 이후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60세 이상과 50대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이어가며 취업자 증가를 견인함(그림 3 참조).
 - 20대 초반과 후반 모두 취업자가 전년동월대비 각각 16천 명, 2천 명 감소하여 20대 취업자는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함.

－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40대는 11개월째 취업자 감소세를 지속함.

〈표 2〉 연령별 취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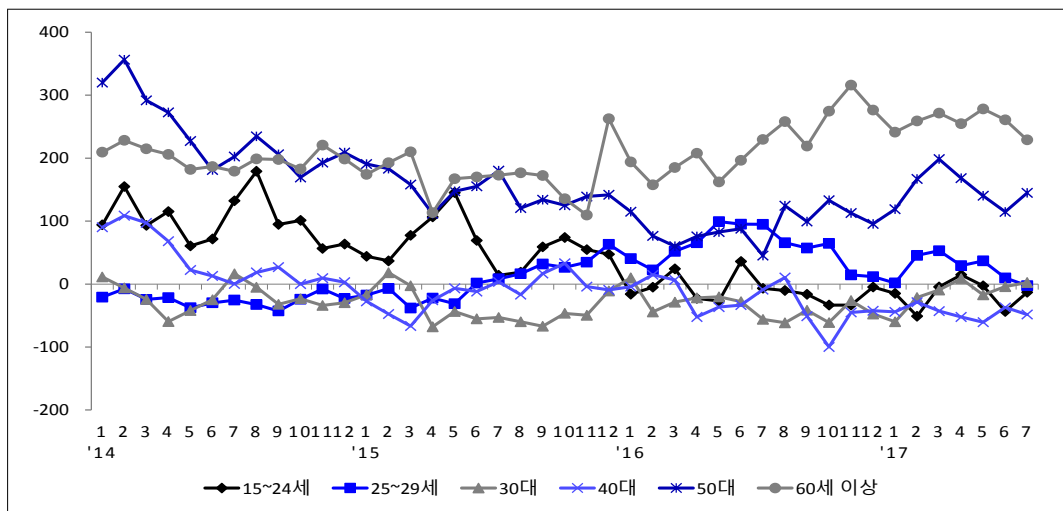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

	2014	2015	2016	2015	2016	2017		
				7월	7월	5월	6월	7월
전 체	25,599 (2.1)	25,936 (1.3)	26,235 (1.2)	26,305 (1.3)	26,603 (1.1)	26,824 (1.4)	26,860 (1.1)	26,916 (1.2)
15~19세	244 (9.1)	245 (0.1)	240 (-2.0)	280 (-1.0)	278 (-0.8)	274 (19.2)	256 (10.1)	280 (0.9)
20~29세	3,625 (1.6)	3,693 (1.9)	3,746 (1.4)	3,746 (0.7)	3,836 (2.4)	3,796 (-0.3)	3,776 (-1.5)	3,818 (-0.5)
20~24세	1,359 (6.4)	1,422 (4.6)	1,417 (-0.3)	1,462 (1.1)	1,458 (-0.3)	1,408 (-3.2)	1,397 (-4.6)	1,442 (-1.1)
25~29세	2,266 (-1.1)	2,272 (0.2)	2,329 (2.5)	2,284 (0.4)	2,379 (4.2)	2,388 (1.6)	2,379 (0.4)	2,377 (-0.1)
30~39세	5,714 (-0.4)	5,676 (-0.7)	5,640 (-0.6)	5,700 (-0.9)	5,643 (-1.0)	5,636 (-0.3)	5,649 (-0.1)	5,646 (0.0)
40~49세	6,682 (0.6)	6,668 (-0.2)	6,640 (-0.4)	6,679 (0.1)	6,670 (-0.1)	6,589 (-0.9)	6,627 (-0.6)	6,622 (-0.7)
50~59세	5,845 (4.3)	5,994 (2.5)	6,086 (1.5)	6,059 (3.1)	6,104 (0.7)	6,252 (2.3)	6,240 (1.9)	6,249 (2.4)
60세 이상	3,489 (6.1)	3,661 (4.9)	3,884 (6.1)	3,842 (4.7)	4,072 (6.0)	4,278 (7.0)	4,312 (6.4)	4,301 (5.6)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2017. 8), 『2017년 7월 고용동향』.

〔그림 3〕 연령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임시직 고용감소와 자영업자 고용둔화 지속

○ 2017년 7월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20,04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0천 명(1.4%) 증가했고, 비임금근로자는 6,86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3천 명(0.6%) 증가해 3개월째 5만 명을 하회하여 회복중임.

〈표 3〉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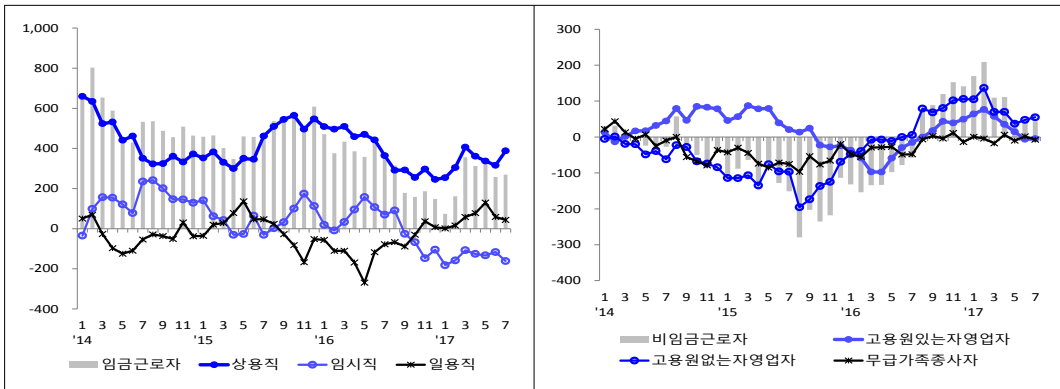
	2014	2015	2016	2015	2016	2017		
				7월	7월	5월	6월	7월
전 체	25,599 (2.1)	25,936 (1.3)	26,235 (1.2)	26,305 (1.3)	26,603 (1.1)	26,824 (1.4)	26,860 (1.1)	26,916 (1.2)
비임금근로자	6,857 (-0.2)	6,706 (-2.2)	6,689 (-0.3)	6,882 (-2.2)	6,824 (-0.8)	6,848 (0.6)	6,854 (0.6)	6,867 (0.6)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550 (2.7)	1,581 (2.0)	1,561 (-1.3)	1,586 (1.3)	1,571 (-1.0)	1,581 (0.9)	1,567 (-0.4)	1,566 (-0.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102 (-0.9)	3,982 (-2.9)	4,009 (0.7)	4,070 (-2.3)	4,076 (0.1)	4,102 (0.9)	4,114 (1.2)	4,131 (1.3)
무급가족종사자	1,205 (-1.3)	1,144 (-5.1)	1,119 (-2.2)	1,226 (-5.8)	1,178 (-3.9)	1,165 (-0.9)	1,173 (0.2)	1,170 (-0.6)
임금근로자	18,743 (3.0)	19,230 (2.6)	19,546 (1.6)	19,423 (2.5)	19,779 (1.8)	19,977 (1.7)	20,007 (1.3)	20,049 (1.4)
상용근로자	12,156 (3.8)	12,588 (3.6)	12,974 (3.1)	12,627 (3.8)	12,991 (2.9)	13,324 (2.6)	13,316 (2.4)	13,379 (3.0)
임시근로자	5,032 (2.9)	5,086 (1.1)	5,104 (0.4)	5,188 (-0.6)	5,258 (1.3)	5,082 (-2.6)	5,114 (-2.2)	5,096 (-3.1)
일용근로자	1,555 (-2.2)	1,556 (0.1)	1,469 (-5.6)	1,608 (3.0)	1,530 (-4.8)	1,571 (9.0)	1,577 (3.9)	1,574 (2.8)
1~17시간	1,177 (0.5)	1,222 (3.9)	1,273 (4.1)	1,206 (6.2)	1,282 (6.3)	1,317 (7.7)	1,262 (0.7)	1,333 (4.0)
18~35시간	2,792 (-21.2)	2,776 (-0.6)	3,206 (15.5)	2,546 (4.2)	2,623 (3.0)	2,597 (3.6)	2,668 (6.3)	2,816 (7.3)
36시간 이상	21,220 (6.4)	21,535 (1.5)	21,346 (-0.9)	22,184 (0.5)	22,282 (0.4)	22,615 (0.9)	22,618 (0.8)	22,413 (0.6)
주당 평균근로시간	43.8	43.6	43.0	43.9	43.4	43.5	43.5	43.2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2017. 8), 『2017년 7월 고용동향』.

- 2017년 7월 임금근로자 중 임시직 근로자가 전년동월대비 162천 명 감소하여 9개월 연속 10만 명 이상 감소하여 임금근로자 증가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는 반면, 상용근로자는 388천 명 증가해 임금근로자 지지중임(그림 4 왼쪽).
- 한편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016년 7월 대비 55천 명 증가해 증가 폭 둔화를 이어가는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5천 명 감소함(그림 4 오른쪽).

[그림 4]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취업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2017년 7월 중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4,14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4천 명(6.2%) 증가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2,41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2천 명(0.6%) 증가함.
 - 17시간 미만 단시간 취업자는 52천 명(4.0%) 증가함.

◆ 건설업 취업자 증가 소폭 둔화 및 제조업 취업자 증가

- 2017년 6월 증가로 전환했던 제조업 취업자가 7월 50천 명 증가로 증가폭을 키워가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에서 취업자는 소폭 둔화됨.
 - 2017년 7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건설업 취업자 증가 추세는 지속되지만 증가폭은 소폭 둔화하여 101천 명 증가를 기록하였고, 건설업과 연관된 부동산 및 임대업 취업자는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7월 73천 명 증가함.
 -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은 건조한 취업자 증가세를 이어가 2017년 7월 56천 명 증가하였고, 교육서비스업 역시 2016년 하반기부터 증가 추세가 지속되어 7월 88천 명 증가하였음.
 - 반면 2017년 6월 감소로 전환한 숙박 및 음식점업은 7월 18천 명 감소하였고, 증가폭이 둔화된 도소매업 또한 감소로 전환하여 12천 명 감소하였음(그림 5 참조).

〈표 4〉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4	2015	2016	2015	2016	2017		
				7월	7월	5월	6월	7월
전 산업	25,599 (2.1)	25,936 (1.3)	26,235 (1.2)	26,305 (1.3)	26,603 (1.1)	26,824 (1.4)	26,860 (1.1)	26,916 (1.2)
농림어업	1,452 (-4.5)	1,345 (-7.4)	1,286 (-4.4)	1,513 (-5.7)	1,402 (-7.4)	1,438 (0.2)	1,475 (1.5)	1,426 (1.7)
광업	13 (-15.8)	14 (2.0)	19 (38.6)	14 (1.0)	19 (36.3)	23 (24.1)	23 (23.0)	24 (23.1)
제조업	4,330 (3.5)	4,486 (3.6)	4,481 (-0.1)	4,528 (3.9)	4,464 (-1.4)	4,489 (-0.6)	4,509 (0.4)	4,513 (1.1)
전기·가스·증기·수도	83 (-8.3)	93 (12.1)	89 (-3.8)	89 (13.2)	92 (3.5)	88 (-3.4)	87 (-4.9)	85 (-8.0)
하수, 원료재생·복원	87 (20.1)	88 (1.0)	96 (9.0)	87 (-4.7)	97 (10.8)	99 (2.8)	103 (7.5)	102 (5.3)
건설업	1,796 (2.4)	1,823 (1.5)	1,845 (1.2)	1,874 (1.3)	1,875 (0.1)	2,002 (8.8)	1,996 (8.1)	1,976 (5.4)
도매 및 소매업	3,792 (3.6)	3,783 (-0.2)	3,729 (-1.4)	3,806 (0.3)	3,770 (-0.9)	3,744 (1.4)	3,730 (0.2)	3,759 (-0.3)
운수업	1,407 (-0.5)	1,409 (0.2)	1,412 (0.2)	1,409 (0.3)	1,398 (-0.8)	1,380 (-3.1)	1,377 (-2.0)	1,385 (-0.9)
숙박 및 음식점업	2,098 (6.4)	2,179 (3.9)	2,277 (4.5)	2,207 (3.5)	2,330 (5.6)	2,296 (1.5)	2,263 (-1.7)	2,312 (-0.8)
출판·영상·방송통신 등	714 (3.1)	772 (8.1)	786 (1.8)	784 (9.1)	811 (3.3)	784 (1.6)	787 (-0.4)	768 (-5.3)
금융 및 보험업	837 (-3.0)	789 (-5.8)	797 (0.9)	783 (-7.4)	809 (3.3)	788 (-2.6)	771 (-3.1)	771 (-4.7)
부동산업 및 임대업	508 (4.6)	535 (5.3)	570 (6.7)	544 (7.1)	581 (6.7)	621 (10.3)	638 (10.6)	653 (12.5)
전문·과학·기술서비스	1,025 (0.3)	1,048 (2.3)	1,102 (5.2)	1,062 (2.9)	1,124 (5.8)	1,101 (-0.7)	1,094 (-2.8)	1,094 (-2.6)
사업서비스	1,180 (0.6)	1,249 (5.8)	1,293 (3.5)	1,263 (7.6)	1,293 (2.4)	1,308 (0.1)	1,303 (0.9)	1,309 (1.2)
공공행정 등	957 (-0.8)	936 (-2.2)	993 (6.1)	958 (-2.7)	1,041 (8.7)	1,057 (2.4)	1,060 (2.4)	1,066 (2.4)
교육서비스업	1,807 (3.4)	1,818 (0.6)	1,846 (1.5)	1,800 (-1.0)	1,834 (1.9)	1,931 (4.3)	1,938 (4.6)	1,922 (4.8)
보건업 및 사회복지	1,693 (8.9)	1,770 (4.5)	1,851 (4.6)	1,768 (2.0)	1,881 (6.4)	1,929 (2.8)	1,929 (2.8)	1,937 (3.0)
예술·스포츠·여가	394 (0.3)	424 (7.9)	406 (-4.3)	431 (8.8)	415 (-3.8)	419 (3.1)	430 (2.9)	445 (7.3)
협회·단체·수리·기타	1,299 (-1.0)	1,277 (-1.7)	1,272 (-0.4)	1,288 (-1.8)	1,280 (-0.6)	1,270 (-1.0)	1,280 (0.2)	1,297 (1.4)
가구내 및 자가	116 (-32.5)	82 (-29.0)	69 (-15.5)	78 (-32.9)	74 (-4.9)	69 (-2.1)	57 (-26.3)	61 (-17.4)
국제 및 외국기관	14 (91.9)	18 (29.4)	16 (-11.5)	19 (28.4)	17 (-11.2)	11 (-41.2)	12 (-30.1)	12 (-30.3)

주 : 1)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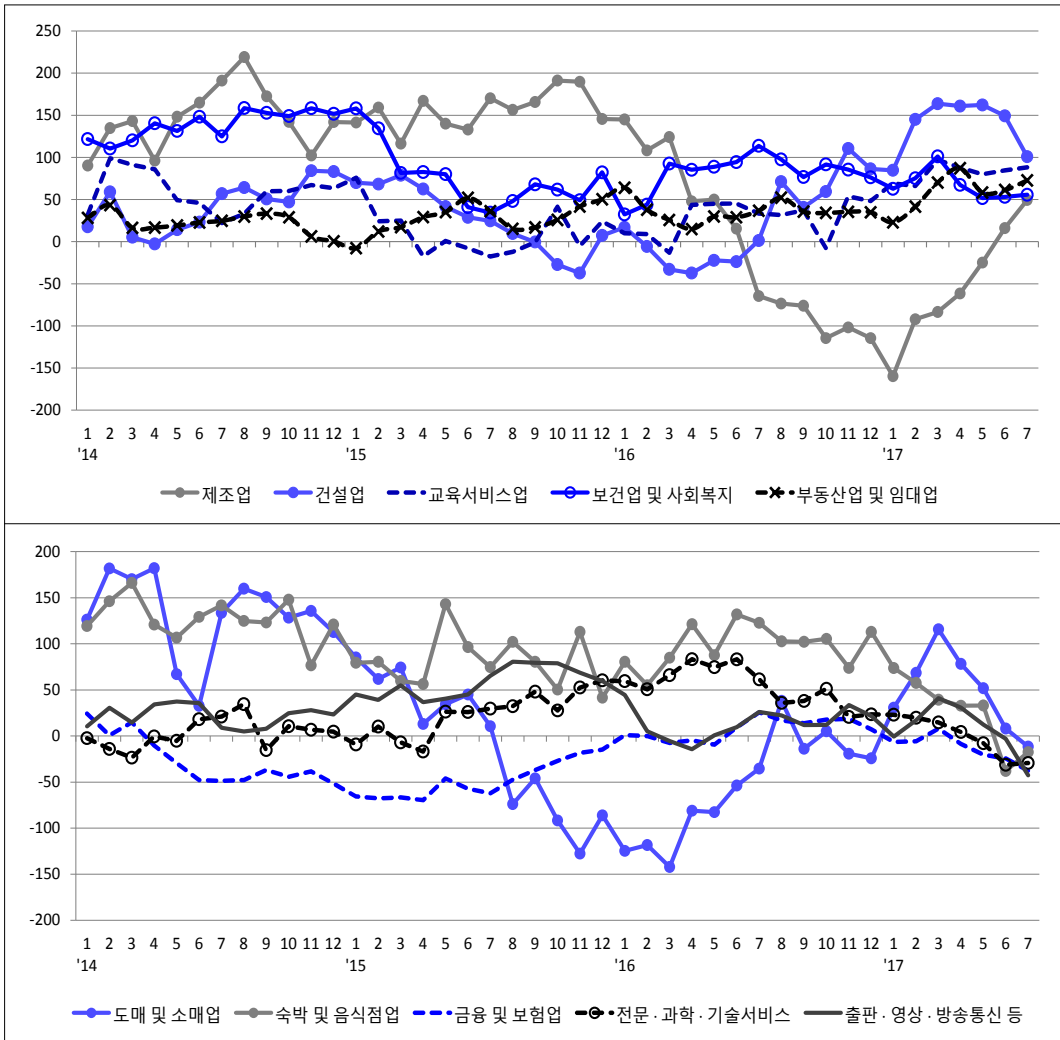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자료 : 통계청(2017. 8), 『2017년 7월 고용동향』.

— 상용직 감소(-42천 명)를 동반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의 취업자 감소가 3달째 이어지고 있으며 7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9천 명 감소함.

[그림 5]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정현상,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김종욱, 동향분석실 연구원)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17년 5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3.6% 증가

- 2017년 5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244천 원(3.6% ↑)임.
 - 2017년 5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3.2% 증가한 3,417천 원이었으며,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4.5% 증가한 1,496천 원임.
 -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은 정액급여 증가폭 확대에 기인함(3.0% → 3.6%).
 - ※ 초과급여 :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17년 5월 실질임금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1.5% 상승함.
 - 2017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2015=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상승률은 명목임금상승률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더 커 전년동월대비 1.5% 상승에 그침.
 - 2016년 5월 0.8%이었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7년 5월 1.9%로 상승하면서 실질임금임금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함.

◆ 2017년 1~5월 평균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은 전년동평균대비 각각 2.9%, 0.9% 상승에 그쳐 상승폭 둔화

- 특히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폭(4.4% → 2.5%)이 크게 둔화함.
 - 이는 상용근로자 정액급여증가를 둔화와 특별급여 감소에 기인함. 반면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은 전년동평균대비 5.4% 상승하여 상승폭이 확대됨.

〈표 1〉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 원, %, 2015=100.0)

	2013	2014	2015	2016	2017			
					1~5월 평균	5월	1~5월 평균	5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3,111 (3.9)	3,190 (2.5)	3,300 (3.5)	3,425 (3.8)	3,391 (4.5)	3,133 (2.9)	3,491 (2.9)	3,244 (3.6)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299 (3.8)	3,378 (2.4)	3,490 (3.3)	3,623 (3.8)	3,582 (4.4)	3,673 (2.5)	3,417 (3.2)
	정액급여	2,578 (4.4)	2,660 (3.2)	2,749 (3.3)	2,838 (3.3)	2,817 (3.6)	2,804 (3.0)	2,907 (3.2)
	초과급여	184 (1.7)	201 (9.3)	216 (7.4)	225 (3.8)	223 (4.1)	235 (0.6)	226 (1.1)
	특별급여	537 (1.8)	516 (-3.7)	525 (1.6)	560 (6.7)	542 (9.2)	273 (4.1)	540 (-0.3)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377 (6.5)	1,387 (0.7)	1,424 (2.7)	1,469 (3.1)	1,438 (2.0)	1,431 (2.3)	1,516 (5.4)	1,496 (4.5)
소비자물가지수	107.8 (1.2)	109 (1.3)	109.8 (0.7)	101.6 (1.0)	100.7 (0.9)	100.8 (0.8)	102.7 (2.0)	102.8 (1.9)
실질임금증가율	2.5	1.2	2.7	2.8	3.6	2.1	0.9	1.5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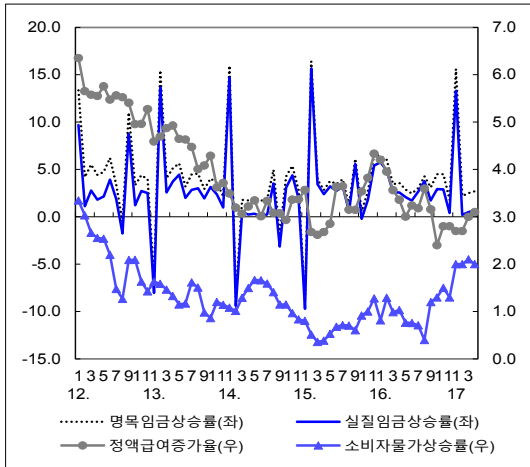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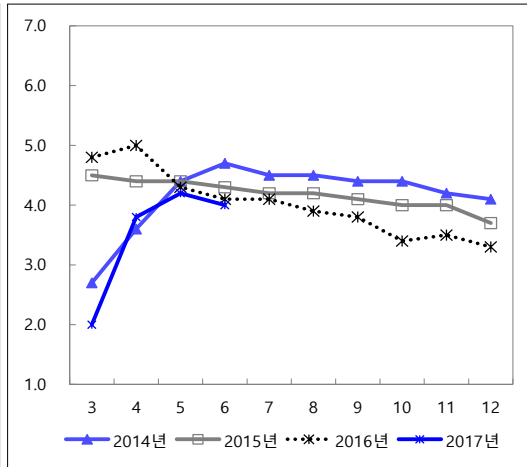
〔그림 1〕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2015=100.0)



〔그림 2〕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 월)



주 :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의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e-나라지표』, www.index.go.kr

◆ 2017년 6월 협약임금 인상률 4.0%

- 2017년 6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4.0%로 전년동월(4.1%) 상승률보다 저조함.
 - 2017년 6월 현재 임금결정 진도율은 29.4%로 전년동월대비 부진함.

◆ 2017년 5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전년동월대비 임금상승폭 확대

- 2017년 5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4.7%, 1.7% 상승함.
 -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임금총액은 3,019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상승폭이 확대됨. 이는 정액급여증가율의 확대(1.8%p ↑)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총액은 4,4197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상승폭이 확대되었지만 증가율은 1.8%에 불과함. 특히 대규모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상승률은 1.5%였으며, 이는 상용근로자 특별급여의 감소폭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이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조선업 경기불황 등의 영향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 더 크게 작용한 데 기인함.

◆ 2017년 1~5월 평균 중소기업의 임금은 증가세를 이어가는 한편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은 둔화

- 2017년 1~5월 평균 대규모 사업체 임금은 4,997천 원으로 전년동평균대비 0.3% 상승에 그침.

〈표 2〉 사업체 규모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 원, %)

		2015	2016	2017			
				1~5월 평균	5월	1~5월 평균	5월
중소 규모	소 계	2,938 (3.6)	3,048 (3.7)	2,998 (3.7)	2,886 (2.9)	3,135 (4.6)	3,019 (4.6)
	상용임금총액	3,110 (3.4)	3,228 (3.8)	3,170 (3.7)	3,055 (2.9)	3,302 (4.2)	3,184 (4.2)
	정액급여	2,577 (2.9)	2,660 (3.2)	2,641 (3.1)	2,637 (2.6)	2,746 (4.0)	2,753 (4.4)
	초과급여	184 (6.6)	197 (7.3)	193 (7.3)	205 (4.0)	202 (4.3)	216 (5.4)
	특별급여	349 (5.3)	371 (6.1)	336 (6.3)	212 (5.2)	354 (5.3)	215 (1.4)
	비상용임금총액	1,434 (3.2)	1,486 (3.6)	1,452 (2.6)	1,465 (3.5)	1,530 (5.4)	1,523 (4.0)
대규모	소 계	4,849 (3.7)	4,959 (2.3)	4,980 (3.4)	4,124 (0.6)	4,997 (0.3)	4,197 (1.8)
	상용임금총액	5,017 (3.9)	5,131 (2.3)	5,145 (3.5)	4,291 (0.9)	5,155 (0.2)	4,354 (1.5)
	정액급여	3,438 (5.1)	3,519 (2.3)	3,487 (3.4)	3,437 (2.5)	3,550 (1.8)	3,521 (2.4)
	초과급여	349 (10.4)	331 (-5.2)	336 (-5.6)	349 (-9.3)	322 (-4.4)	352 (0.9)
	특별급여	1,230 (-0.7)	1,281 (4.2)	1,322 (6.5)	504 (-1.8)	1,283 (-3.0)	481 (-4.7)
	비상용임금총액	1,329 (-1.8)	1,311 (-1.4)	1,310 (-3.8)	1,164 (-6.6)	1,382 (5.6)	1,272 (9.3)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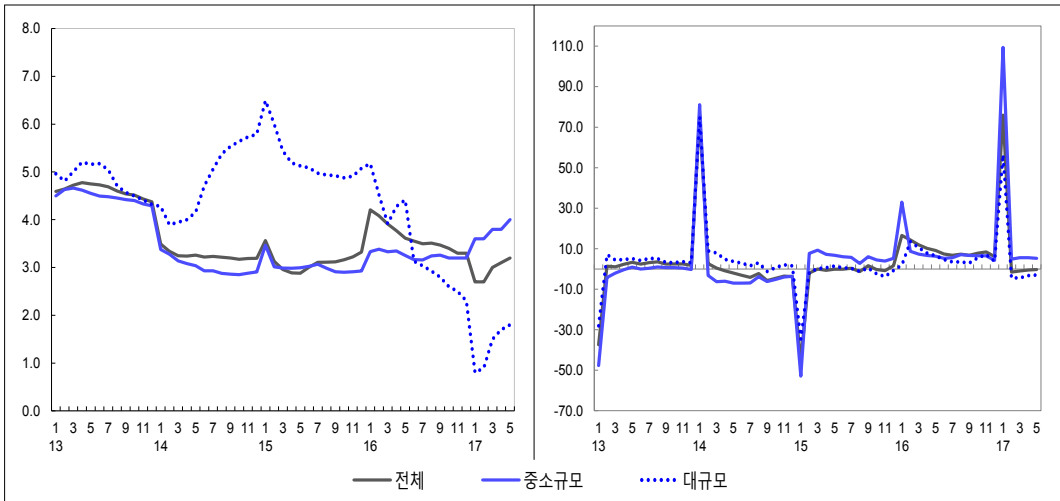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률 둔화는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증가율 둔화와 특별급여 감소에서 비롯됨. 반면 중소기업 사업체의 임금(3,135천 원)은 정액급여증가율 확대(0.9%p ↑)로 인해 전년동평균대비 4.6% 상승하여 상승폭이 확대됨.

[그림 3] 1~5월 평균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1인당 평균 정액급여증가율과 특별급여증가율 추이

(단위 : %)



주 :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특별급여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7년 5월 산업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금융 및 보험업(-0.3%)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

- 2017년 5월 임금상승폭이 가장 컸던 산업은 교육서비스업(9.0%, 3,518천 원)이었음.
 - 이외에도 숙박 및 음식점업(6.8%)에서 전산업 평균을 상회하는 6%대 이상의 임금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여가관련 서비스업(4.5%), 건설업·도소매업(4.4%) 등도 높은 임금상승률을 기록함.
 - 반면 금융 및 보험업(-0.3%)은 임금이 감소했으며,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0.6%), 부동산업 및 임대업(1.8%)은 0~1%대의 저조한 임금상승률을 기록함.

◆ 2017년 1~5월 평균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산업에서 증가했으나 증가폭 둔화

- 2017년 1-5월 평균 임금상승폭이 컸던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6.5% ↑)이었으며, 그 다음으

로 여가관련서비스업(5.5%), 도매 및 소매업(5.1%) 등 주요 내수산업으로 나타남.

- 반면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0.4%)은 가장 저조한 임금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제조업(2.4%)도 전산업 평균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 원, %)

	2015	2016	2017			
			1~5월 평균	5월	1~5월 평균	5월
전 산업	3,300 (3.5)	3,425 (3.8)	3,391 (4.5)	3,133 (2.9)	3,491 (2.9)	3,244 (3.6)
광업	3,676 (5.6)	3,796 (3.3)	3,669 (4.4)	3,803 (4.6)	3,740 (1.9)	3,809 (0.2)
제조업	3,617 (3.2)	3,755 (3.8)	3,751 (5.1)	3,297 (3.2)	3,840 (2.4)	3,421 (3.8)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856 (5.4)	6,330 (8.1)	5,652 (5.9)	4,880 (4.7)	5,675 (0.4)	4,909 (0.6)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945 (4.8)	3,118 (5.8)	3,010 (5.3)	2,974 (4.8)	3,128 (3.9)	3,071 (3.2)
건설업	2,591 (3.8)	2,673 (3.2)	2,687 (3.7)	2,544 (1.1)	2,774 (3.3)	2,657 (4.4)
도매 및 소매업	3,292 (2.7)	3,428 (4.1)	3,395 (5.2)	3,191 (3.9)	3,567 (5.1)	3,333 (4.4)
운수업	2,952 (5.3)	3,102 (5.1)	3,006 (6.2)	2,873 (6.0)	3,127 (4.0)	2,980 (3.7)
숙박 및 음식점업	1,824 (2.2)	1,881 (3.1)	1,864 (3.1)	1,858 (6.5)	1,985 (6.5)	1,984 (6.8)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4,012 (2.7)	4,146 (3.3)	4,161 (4.3)	4,004 (2.6)	4,290 (3.1)	4,107 (2.6)
금융 및 보험업	5,488 (4.9)	5,712 (4.1)	5,804 (4.3)	5,367 (3.0)	5,992 (3.2)	5,352 (-0.3)
부동산업 및 임대업	2,478 (6.7)	2,617 (5.6)	2,557 (4.7)	2,489 (5.2)	2,614 (2.2)	2,534 (1.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561 (3.2)	4,817 (5.6)	4,590 (7.0)	4,347 (3.8)	4,754 (3.6)	4,440 (2.1)
사업서비스업	2,002 (4.1)	2,077 (3.7)	2,022 (2.4)	1,998 (1.6)	2,083 (3.0)	2,056 (2.9)
교육서비스업	3,483 (3.2)	3,556 (2.1)	3,554 (1.9)	3,227 (0.0)	3,695 (4.0)	3,518 (9.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772 (2.7)	2,860 (3.2)	2,816 (2.0)	2,722 (0.9)	2,885 (2.5)	2,810 (3.2)
여가관련 서비스업	2,512 (4.7)	2,618 (4.2)	2,568 (7.0)	2,552 (7.8)	2,709 (5.5)	2,666 (4.5)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326 (3.4)	2,477 (6.5)	2,396 (7.6)	2,331 (6.8)	2,506 (4.6)	2,372 (1.8)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7년 5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7.6시간(-4.5%) 감소한 162.3시간(월력상 근로일수 19.4일로 전년동월대비 0.8일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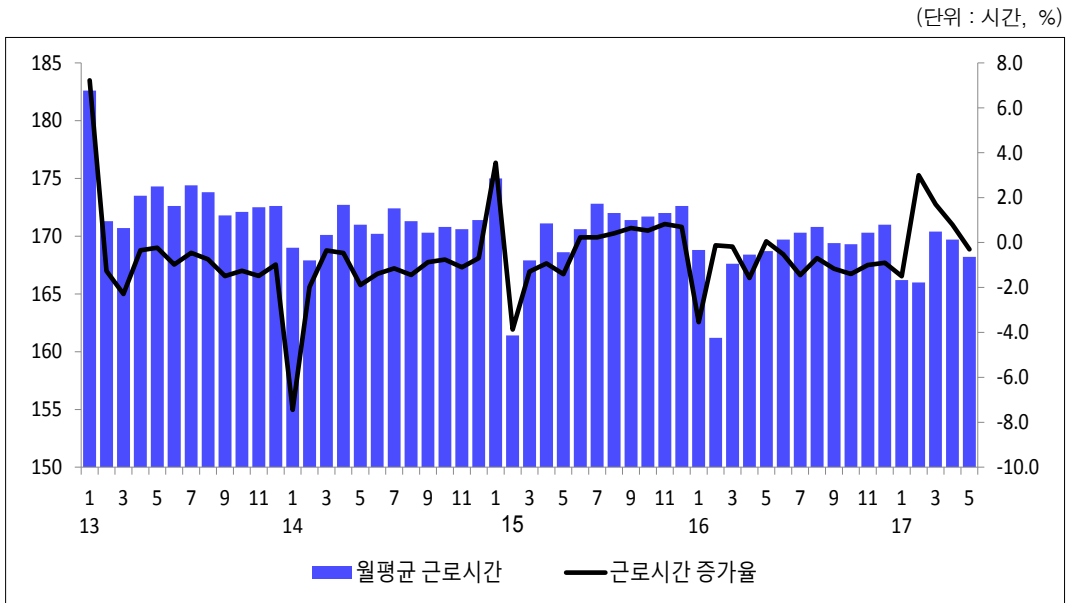
○ 2017년 5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7.6시간 감소함.

- 상용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68.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7% 감소하였고, 임시·일용직 근로시간은 105.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4% 감소함.

◆ 2017년 1~5월 평균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0.5시간 감소한 168.2시간(월력상 근로일수 20.1일로 동일)

- 2017년 1~5월 평균 상용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73.5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0.4% 감소하였고, 비상용근로자는 110.3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1.6% 감소함.

[그림 4] 근로시간과 근로시간 증가율(1~5월 평균) 추이



주 :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7년 5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평균 근로시간은 근로일수 감소 등으로 각각 전년동월대비 4.3%, 5.2% 감소(사업체규모별 1~5월 평균 근로시간은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전년동평균대비 0.3%, 0.4% 감소)

- 5월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총근로시간은 163.7시간(-4.3%), 대규모 사업체는 156.5시간(-5.2%)으로 나타남.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경우, 상용근로자 초과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8.7% 감소한 13.6시간이었으며, 비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6.4% 증가한 79.4시간으로 나타남.

〈표 4〉 사업체규모별 근로시간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시간, %)

		2015	2016	2017			
				1~5월 평균	5월	1~5월 평균	5월
중소 규모	전체 근로시간	173.2(0.7)	172.0(-0.7)	169.5(0.3)	171.1(7.4)	169.0(-0.3)	163.7(-4.3)
	상용 총근로시간	179.6(0.7)	178.6(-0.6)	175.6(0.3)	177.8(7.7)	174.9(-0.4)	169.8(-4.5)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67.4(0.8)	166.1(-0.8)	163.4(0.3)	164.9(8.6)	162.9(-0.3)	157.0(-4.8)
	상용 초과근로시간	12.2(0.0)	12.4(1.6)	12.2(0.0)	12.9(-2.3)	12.0(-1.6)	12.9(0.0)
	비상용근로시간	117.5(-1.5)	115.7(-1.5)	114.8(-0.3)	114.7(4.0)	112.1(-2.4)	108.5(-5.4)
대규모	전체 근로시간	169.7(0.5)	166.9(-1.6)	165.5(-0.6)	165.0(6.4)	164.8(-0.4)	156.5(-5.2)
	상용 총근로시간	173.7(0.9)	170.8(-1.7)	169.1(-0.5)	170.2(6.7)	168.0(-0.7)	160.6(-5.6)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8.3(1.1)	157.0(-0.8)	154.8(0.7)	155.2(9.3)	155.5(0.5)	147.1(-5.2)
	상용 초과근로시간	15.4(-1.3)	13.7(-11.0)	14.3(-11.7)	14.9(-14.9)	12.4(-13.3)	13.6(-8.7)
	비상용근로시간	86.9(-7.4)	85.5(-1.6)	86.4(-3.4)	74.6(1.4)	93.0(7.6)	79.4(6.4)

주 :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7년 5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전산업에서 감소

○ 5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2%, 150.3시간)이었음.

－ 이 외에도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6.5%, 149.6시간), 건설업(-5.9%, 138.0시간), 금융 및 보험업(-5.9%, 150.9시간) 순으로 월평균 근로시간이 감소함.

－ 5월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185.1시간),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138.0시간)으로 나타남.

○ 1~5월 평균 근로시간의 변화가 산업별 차이를 보임. 전체적으로 전년동평균대비 평균 근로시간이 감소한 가운데 광업(2.0%),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1.8%),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0.9%),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0.7%) 등을 중심으로 증가함.

－ 1~5월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185.3시간),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144.5시간)으로 나타남.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시간, %)

	2015	2016	2017			
			1~5월 평균	5월	1~5월 평균	5월
전 산업	172.6 (0.7)	171.0 (-0.9)	168.7 (0.1)	169.9 (7.1)	168.2 (-0.3)	162.3 (-4.5)
광업	179.2 (-0.1)	179.0 (-0.1)	175.7 (0.1)	180.8 (7.4)	180.0 (2.4)	177.1 (-2.0)
제조업	186.3 (0.5)	184.5 (-1.0)	182.1 (-0.2)	184.6 (6.8)	181.9 (-0.1)	177.2 (-4.0)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0.8 (0.2)	167.5 (-1.9)	164.0 (-2.7)	160.0 (0.4)	164.4 (0.2)	149.6 (-6.5)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77.8 (0.0)	177.1 (-0.4)	174.9 (1.5)	175.9 (7.0)	178.1 (1.8)	175.2 (-0.4)
건설업	147.4 (-0.7)	145.7 (-1.2)	145.0 (0.6)	146.7 (8.2)	144.5 (-0.3)	138.0 (-5.9)
도매 및 소매업	172.9 (0.3)	171.4 (-0.9)	168.6 (-0.4)	170.3 (7.0)	168.5 (-0.1)	162.1 (-4.8)
운수업	173.9 (0.5)	172.3 (-0.9)	170.5 (0.1)	172.0 (5.1)	168.5 (-1.2)	165.2 (-4.0)
숙박 및 음식점업	175.3 (0.1)	172.3 (-1.7)	170.1 (-1.9)	172.2 (1.4)	170.5 (0.2)	170.3 (-1.1)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164.3 (1.5)	163.3 (-0.6)	160.0 (0.3)	160.6 (10.6)	161.4 (0.9)	151.4 (-5.7)
금융 및 보험업	164.3 (0.6)	162.8 (-0.9)	160.0 (-0.1)	160.3 (10.6)	160.9 (0.6)	150.9 (-5.9)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2.8 (1.4)	191.2 (-0.8)	189.3 (0.4)	190.7 (5.7)	185.3 (-2.1)	185.1 (-2.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4.9 (1.0)	163.3 (-1.0)	160.6 (0.4)	161.9 (10.4)	160.6 (0.0)	150.3 (-7.2)
사업서비스업	173.2 (0.8)	171.7 (-0.9)	168.6 (0.0)	169.0 (7.0)	166.9 (-1.0)	161.9 (-4.2)
교육서비스업	151.5 (-0.3)	148.5 (-2.0)	145.3 (-2.2)	143.3 (4.1)	145.2 (-0.1)	136.0 (-5.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1.5 (1.1)	169.7 (-1.0)	167.0 (0.2)	167.9 (7.0)	165.4 (-1.0)	161.7 (-3.7)
여가관련 서비스업	160.6 (1.1)	159.7 (-0.6)	156.6 (0.1)	160.0 (5.5)	156.9 (0.2)	154.6 (-3.4)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3.7 (0.5)	163.6 (-0.1)	160.6 (0.7)	162.1 (6.6)	161.8 (0.7)	156.1 (-3.7)

주 :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지난 7월 노동쟁의와 관련된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447건
 - 지난 7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건수(422건)보다 25건 많은 수치임.
- 지난 7월 조정성립률 54.1%
 - 지난 7월 조정성립률은 작년 동월 성립률 58.6%에 비해 4.5% 낮아진 수치임.

〈표 1〉 2016년, 2017년 7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17. 7	447	413	204	90	114	173	21	152	6	30	34	54.1
2016. 7	422	398	205	79	126	145	11	134	10	38	24	58.6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심판사건

- 지난 7월 심판사건 접수건수는 8,058건
 - 지난 7월 심판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8,610건)보다 552건 낮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비율이 13.5%(864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86.5%(5,537건)를 차지함.

〈표 2〉 2016년, 2017년 7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내역							진행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17. 7	8,058	6,401	756	108	1,113	401	2,327	1,696	1,657
2016. 7	8,610	6,870	890	150	1,159	469	2,668	1,534	1,740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김영주 제6대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 균형 있는 노동정책 추진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을 최소화하고, 상시·지속적인 업무와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힘.
- 김영주 장관은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관련해서는 “귀책사유가 원청 업체에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조함.
- 김영주 장관은 산재 사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고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급이 이뤄진 경우에도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해·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도급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감정노동자 문제, 장시간근로 문제 등 해결을 위해 법·제도적 개선과 함께 문화 혁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힘.
- 김영주 장관은 “노동현장 출신인 제가 편향적인 노동정책을 펼 것이라고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노사 모두로부터 박수 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균형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함.

◆ 정부, 2019년 ILO 핵심협약 비준 준비

○ 고용부 전문가모임 준비작업 돌입

- 정부가 2019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이에 따른 각종 법 개정을 완료할 것으로 전해짐. 언론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전문가들과 함께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작업에 돌입함.
- ILO 핵심협약 중 한국 정부가 비준하지 않은 것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 등임.
-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등의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비정규직 노사관계 동향

○ 학교비정규직: 교육부·교육청 첫 집단교섭

-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집단교섭이 시작됨.
- 20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연대회의와 교육부·15개 교육청이 집단교섭을 위한 단체교섭 절차·방법 합의를 도출함. 8월 18일, 첫 집단교섭에는 인천·경북교육청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이 참여함.

- 연대회의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여성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 노조에 속한 비정규노동자는 9만 명 규모임.
- 노조측 핵심 요구는 근속수당제 도입과 수당·복리후생제도 개선임.

○ 아사히글라스노조 패소

- 올해 3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아사히글라스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인정하는 판정을 내린 바 있음. 아사히글라스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올해 4월 서울행정법원은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회사 승소판정을 내림.
-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업체 지티에스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2015년 5월 금속노조 아사히사내하청지회(지회장 차현호)를 설립함. 다음 달 원청은 하청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하청업체가 폐업함. 2015년 8월 170명 노동자 전원이 해고된 바 있음.
- 민주노총 소속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은 불법파견·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받는 아사히글라스를 즉각 기소하라고 검찰에 촉구함.

○ 동양시멘트 불법파견·대량해고 사태 해결국면 돌입

-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에 따르면, 동양시멘트(현 삼표시멘트) 사측은 해고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근속연수를 인정하겠다는 안을 내고, 복직 시기도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이행하겠다고 제안함.
-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부장판사 김범준)는 지난해 12월 지부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들과 동양시멘트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음.

○ 만도헬라 비정규직노조 철야농성 돌입

- 만도헬라의 두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노동자들은 임금·단체교섭 결렬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조합원들이 돌아가며 파업에 동참하는 순환파업을 이어 옴.
- 사내하청 비정규노동자들은 원청에 고용보장과 관련한 직접교섭을 요구하며 한라그룹 앞 노숙농성에 돌입함.
- 민주노총은 “만도헬라에서 비정규직노조 무력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힘.

◆ 대기업 노사관계 동향

○ 현대차 부분파업

-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17일 8시간, 18일 총 8시간, 21일 4시간 부분파업을 실시함.

- 임단협에서 사측안이 제시되었지만, 노조가 거부한 상태임.

○ 삼성에스원노조 설립

- 삼성에스원노조는 7월 28일 설립신고서를 제출, 8월 3일 서비스연맹에 가입함.
- 국내 1위 보안경비업체, 삼성에스원노조는 8월 4일, 삼성에스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무노조 경영의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조를 출범한다”고 밝힘.

◆ 언론사 노사관계 동향

○ KBS, MBC 파업 예고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성재호)와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김연국)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KBS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파업을 공식화함.
- 양대 노조는 각각 고대영, 김장겸 사장 퇴진과 방송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음.
- 양대 노조는 “총파업을 조만간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파업으로 새로운 KBS, MBC를 만들어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힘.

○ MBC판 블랙리스트에 반발, 제작거부 확산

- 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김연국)는 16일, ‘MBC 블랙리스트’를 공개함. MBC 사측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문건은 파업 참여, 노조활동 경력을 근거로 65명의 카메라 기자들의 성향을 구분하고, ‘요주의 인물’에 대해서는 ‘주요 부서 격리’를 주문하고 있음.
- MBC판 블랙리스트에 반발한 MBC 구성원들의 제작거부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음. MBC 본사 보도국 기자 81명은 지난 11일부터 제작거부에 돌입함. 전국MBC기자회는 14일부터 본사 기사 송고를 무기한 중단한 상태임.

○ YTN 해직기자 복직

- 노종면·조승호·현덕수 등 YTN 해직기자들이 9년 만에 복직함.
- 이들은 2008년 이명박 대선후보 방송특보 출신인 구본홍씨가 YTN 사장에 선임되자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하며 퇴진투쟁을 하다 해고된 바 있음.
- YTN지부와 사측은 올해 6월부터 7차례 협상 끝에 이들에 대한 복직에 합의함. **KLI**

(송민수, 동향분석실 전문위원)